

제13권 22호

2023. 11. 13~2023. 11. 26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저성장기조 탈출을 위한 신산업혁신생태계 전략 |
| 이슈분석 |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요동치는 이차전지 시장 |
| 금융경영브리프 | 해외은행, 미국내 기업·투자은행(CIB) 사업 확대 계획
싱가포르 은행, 금융사기 대비 보안 강화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비둘기파 연준과 재무부 국채발행 조절에 반락
외 환 : 금락 후 숨고르기 장세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김종현(jh.kim_)

논단

한국경영학회 회장 김재구

이슈분석

연구위원 오유진(yujin.oh)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이종수(jongsoo.lee)
수석연구원 정순영(syj)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금융지표

연구위원 진옥희(okheej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저성장기조 탈출을 위한 신산업혁신생태계 전략
- 04 **이슈분석**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요동치는 이차전지 시장
- 08 **금융경영브리프** 해외은행, 미국내 기업·투자은행(CIB) 사업 확대 계획
싱가포르 은행, 금융사기 대비 보안 강화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비둘기파 연준과 재무부 국채발행 조절에 반락
외 환 : 급락 후 숨고르기 장세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저성장기조 탈출을 위한 신산업혁신생태계 전략*

김 재 구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전략이 필요하다.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대전환을 위해서는 쿼텀 점프해야 한다. 글로벌 신산업생태계를 통한 산업구조 대전환과 일자리 혁신,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대부흥, 창의혁신의 글로벌 인재생태계, 정부경영혁신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정부와 의회도 동참해야 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혁신전주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혁신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 왜 글로벌 혁신생태계 전략인가?

지금 세계경제는 생태계 對 생태계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성장과 활력을 자랑하는 국가나 지역들은 반드시 혁신적인 기업이나 창업가들을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구글이나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을 통해 활발한 혁신과 투자를 행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생태계전략”으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는 현재 중요한 변곡점에 처해 있다. 인구소멸, 지역소멸, 무역수지 악화, 사상 최고 수준의 가계-기업-정부 부채비율, 일자리-소득-자산 초양극화 등의 지표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대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의 근원에는 ① 장기 저성장 고착화 ② 지역 불균형과 서울 초집중화 ③ 글로벌 혁신경제로부터의 고립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위기 상황을 초래한 이 3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지금의 난관을 쿼텀 점프할 수 있는 ‘K-혁신성장’이 필요하다.

세계경제는 생태계 對 생태계의 전쟁 중.
한국은 구조적 저성장 탈피를 위해 ‘K-혁신성장’ 쿼텀 점프가 필요

이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통해 가능한데, 그 첫 번째 아젠다는 글로벌 신산업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구조와 일자리의 대전환이다. 기업들에게 자유를 주어 혁신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에는 혁신을,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둘째,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방시대의 실현이다. 셋째, 기업가정신 대부흥을 통한 사회문화 변혁이다. 넷째, 창의·혁신·글로벌 인재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 대개혁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으로 정부경영혁신이 중요하다. 이상의 5대 핵심의제를 민간이 주도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시민사회 및 언론,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참여하여 실행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민간주도성장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 연구기관, 시민사회 협력 기반 아젠다를 제시. 기업혁신은 물론 대학경영혁신과 정부개혁을 동시에 이루어야


이런 고민 하에 한국경영학회는 2023년에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 ‘K-혁신성장 포럼’을 발족시켜 대한민국 일대혁신(Korea Grand Innovation)을 이끌어 왔다. 산학연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도록 사회 다방면적인 협력을 추진했는데, ① 기업 부문 :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이노비즈, 각 산업협회 등 ② 대학 및 연구기관 부문 :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협의회, 정부출연연구원, 사회과학5대 학회 및 유관 학회 등 ③ 시민사회 및 언론 부문 : 주요 시민단체, 언론 등 ④ 정부 및 의회 부문 :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 국가교육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함께 하였다.

‘글로벌 신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은 대한민국의 일대혁신을 일으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혁신은 물론, 대학경영혁신과 정부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기업혁신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전략산업 재구축에 대한 정책 논의와 결정이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용하여 지역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지방의 고유한 특성에 맞도록 신산업혁신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을 혁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연구개발과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지역 대학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협의회, RISE협의회, 국가교육위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 지역현장에서 대학들이 R&D사업에 참여하며 기술사업화,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개혁이 어렵다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신산업을 만들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규제이기 때문이다. 이 규제가 현재 부처 단위로 되어 있어 통합이 어렵고 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신산업을 이끌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타나고, 신산업의 혁신과 기회를 북돋아 줄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개혁이 절실하다.

❖ 어떻게 할 것인가? 신산업혁신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나아가 국내 6대그룹의 관련 기관 및 한경협 등과 협력하여 ‘K-혁신성장 포럼’을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국내 산업혁신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국제직접투자수지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는 등 국내의 산업혁신생태계는 활력을 잃고 있다.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 국제직접투자수지 적자 규모는 484억 달러(약 62조5천억원)에 이른다. 2012년 이래 외국인직접투자(국내투자)는 연평균 9.0% 증가한데 반해, 우리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1.7% 증가해 국제직접투자수지 적자가 2012년 211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12.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부터 우량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부문은 일정한 산업혁신투자 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제도적/정책적/문화적 제약으로 국내 산업혁신투자보다는 해외직접투자에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기업들의 개방형 혁신 및 기업벤처링 등 혁신생태계 조성 활동을 위해서는 사업개발 및 투자를 함께 할 수 있는 산업혁신전문회사(corporate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company)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기업의 CVC 설립 및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가되나, 개별 기업 또는 기업연합 차원에서 <혁신기반 조성 - 기업가정신 및 혁신 교육 -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신산업 인프라(테스트베드 등) 개발 -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엑셀러레이팅 - CVC - PE>에 이르는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전주기 활동을 자유롭게 소화하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크다.

미국의 사업개발전문회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와 CVC, 또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O)를 결합한 모델이 가능하게 하고, 개별 기업들이 그 유형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엑셀러레이터 및 연구활동, 기업대학을 활성화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기능을 수행하고 개방형 혁신플랫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사립대 등을 인수하고 기업대학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게 하여 혁신캠퍼스타운(대학+산업단지+정주환경) 개발을 통해 지역기반 신산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혁신이 가능할 때, 한국은 생태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구글생태계, 테슬라생태계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삼성생태계, 현대차생태계 등과 같은 혁신생태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산업혁신전문회사
도입을 통해
신산업육성 전주기
활동을 지원하고
개방형 혁신과
혁신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게 해야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요동치는 이차전지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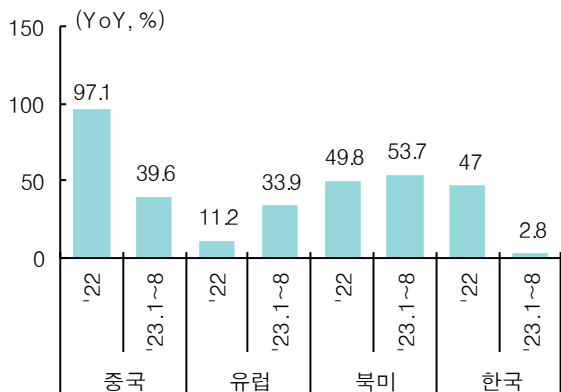
오 유 진 연구위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차량 구매 부담 증가, 각 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으로 그동안 빠르게 성장했던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및 투자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일부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시기를 인력과 투자 시간을 벌여주는 기회로 이용하고자 하며, 미-중 갈등에 대응하여 非중국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제품 다변화와 생산 안정화에 나서는 등 내실을 키우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 그간 빠르게 성장했던 전기차 판매가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둔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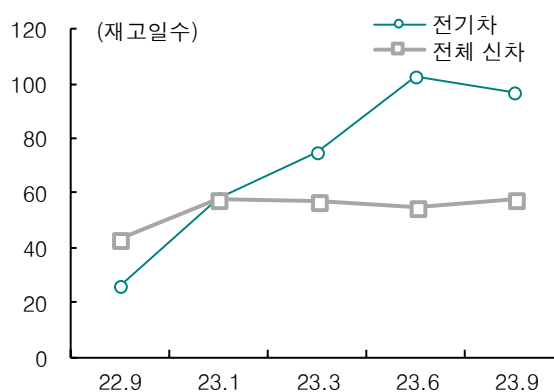
- 세계 전기차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EV 판매 증가율은 부동산 부진 등 경기 둔화 여파로 '22년 97.1%에서 '23년 1~8월 39.6%로 하락
- 북미의 경우 아직 전년대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딜러사에 전기차 재고가 빠르게 쌓이는 등 판매 열기가 냉각
 - '23년 9월 미국 EV 재고일수는 전년동월대비 271% 증가한 97일(적정 수준 60~90일)
- 유럽은 '23년 8월까지 양호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지만, 핵심 시장인 독일에서 9월부터 보조금이 축소되며 EV 등록대수가 전월대비 64% 감소하는 모습
- 한국의 EV 판매 증가율은 '22년 47%에서 '23년 1~8월 2.8%로 주요 지역 중 가장 크게 위축되었는데 경기 부진 속 보조금 감소 및 충전요금 인상 등에 기인

■ 주요 지역별 전기차 판매 증가율 변화



주 : BEV+PHEV, 상용차 포함
자료 : SNE리서치, KAMA

■ 미국의 전기차 및 신차 재고 동향



주 : 재고일수 = 총재고/하루판매대수, 딜러사가 소비자 판매 전까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며, 테슬라 등 제외
자료 : Cox Automotive

■ 최근 급변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따라 조정 방향은 차별화

- GM은 혼다와 공동 개발 중인 보급형 소형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했고, 미시간주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의 가동 시점도 '25년으로 1년 연기
- 포드는 '23년 전기차 생산목표를 60만대에서 40만대로 낮췄으며, 배터리 공장 건설 등 120억 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전기차 관련 투자를 연기하겠다고 밝힘
- 폭스바겐은 독일 볼프스부르크 차세대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핵심 EV 생산기지인 츠비카우 공장의 임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생산 축소
- 반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시장 악화에도 기존 전기차 생산 및 개발 계획을 유지할 계획이며, 도요타는 미국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

■ 완성차의 전기차 속도 조절 움직임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생산 계획에도 영향

- 포드의 EV 투자 연기로 블루오벌SK(포드-SK온 JV)의 일부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지연
 - SK온과 포드는 테네시주에 1개, 켄터키주에 2개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중 '26년 가동 예정이었던 켄터키 2공장 건설이 지연되며, 나머지 2곳은 예정대로 진행
-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인 얼티엄셀즈의 북미 배터리 1~3공장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나, 현재 건설 중인 미시간주 3공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라인 증설 속도를 조절해 나갈 수 있음(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실적발표 중 언급)
 - 오하이오주 1공장은 '22년 11월 가동 시작, 테네시주 2공장은 '24년 초 가동 예정
- 삼성SDI의 경우 현재 완성차와의 합작공장 지연 이슈는 없으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수요 둔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상황 예의 주시

■ 전기차 투자 관련 주요 자동차 회사별 동향

방향	기업	동향
축소/연기	GM	- GM-혼다, 저가 EV 공동개발 계획 철회 - '22~'24년 EV 40만대(2년) 생산계획 폐기 - '25년말까지 100만대 생산 목표는 유지
	포드	- 120억 달러 규모 전기차 투자 계획 연기
	폭스바겐	- 독일 볼프스부르크 신규 공장 백지화 - 츠비카우 공장 인력 감축 및 생산 조정 - 동유럽 배터리 공장 설립 무기한 연기
유지	현대차	- 美 EV 공장 '24년 하반기 양산 일정 유지 - 전기차 판매 및 개발 계획 유지
	도요타	- 美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하여 생산라인 8개로 확장

자료 : 언론보도 종합

■ 주요 완성차-배터리업체 협력관계

	GM	포드	현대차 그룹	테슬라	VW	BMW
LGES						
삼성SDI						
SK온						
CATL						
파나소닉						

주 : 협력관계인 경우 음영으로 표시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중국 이차전지 기업들이 자국 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수출과 해외 진출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점도 국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

- 중국은 경기 둔화 및 높은 전기차 침투율로 EV 성장 속도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이차전지 기업은 크게 늘어나 경쟁강도가 상승하고 공급과잉 발생
 - '23년 1~8월 中 배터리 생산 419.7GWh, 이용 219.2GWh, 재고 200.5GWh(CABIA)
- '22년 중국 이차전지 기업의 평균 추정 가동률은 55%(CRU)에 불과하며, 1위인 CATL의 가동률도 '22년 83.4%에서 '23년 상반기 60.5%로 크게 하락
- 중국 기업들은 내수 포화를 타개하고자 리튬 이차전지 수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수출 증가율은 '22년 80%에 이어 '23년 1~9월에도 39%로 높은 수준
- 서방과의 갈등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CATL, 귀쉬안 하이테크, SVOLT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은 수출을 넘어 유럽 등으로의 직접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차전지 전반의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점도 사업 환경을 저하시키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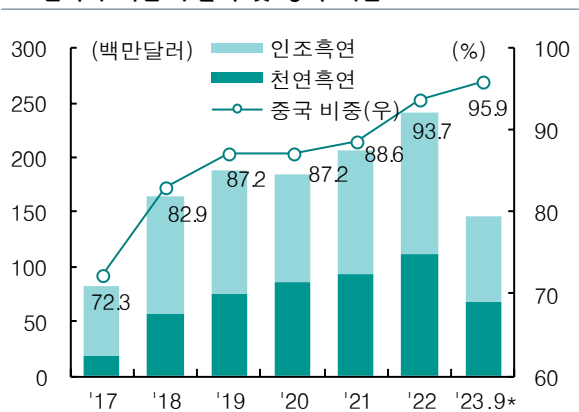
-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료로 세계 흑연 채굴 및 가공의 70~8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무기화에 가장 취약한 품목 중 하나
 - 대규모 설비투자, 느슨한 환경규제, 낮은 인건비 등으로 中 흑연 가격경쟁력 우수
- 한국은 올해 1~9월 인조흑연의 94%, 천연흑연의 98%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단기간에 국내 및 여타국으로 대체 어려움
-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만큼 여타 소재로의 통제 확대나 공급망 불안 심화로 생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의 잠재 리스크로 작용

■ 중국 주요 이차전지 기업의 유럽 내 직접 진출 현황

기업	국가	생산능력 (GWh)	현황
CATL	독일	8	- '22년 12월 가동 시작, 14GWh로 확대 예정
	헝가리	100	- '23.3Q 착공 예정, '25년 양산
귀쉬안 하이테크	독일	3.5	- '23년 9월 배터리 팩 양산 시작, 추후 20GWh로 확대 예정
SVOLT	독일	24	- 자를란트주, '22년 후반에서 '27년으로 연기
		16	- 브란덴부르크, '25년 양산 예정

자료 : 언론보도 종합

■ 한국의 흑연 수입액 및 중국 의존도




주 : '23년은 9월까지의 누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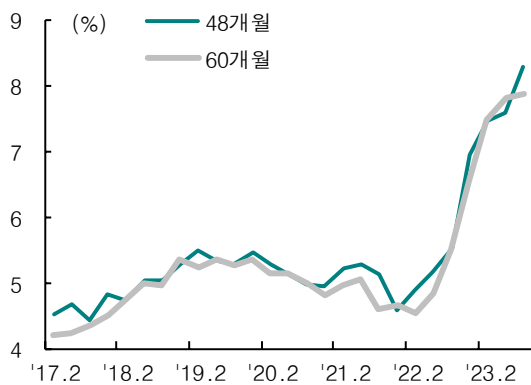
■ 전기차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이차전지 산업의 단기 성장통 불가피

-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유가 불안 등으로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조짐을 나타내면서 '24년에도 금리가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고금리 장기화로 구매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판매 촉진을 위해 EV 가격 인하 경쟁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완성차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여력 약화로 연결
 -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美 업체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도 부담
-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출시 계획을 늦추고 목표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단기 수요 위축이 불가피

■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미-중 갈등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LFP 배터리 양산 등 제품 다변화와 생산 안정화에 나서는 등 내실을 키우는데 집중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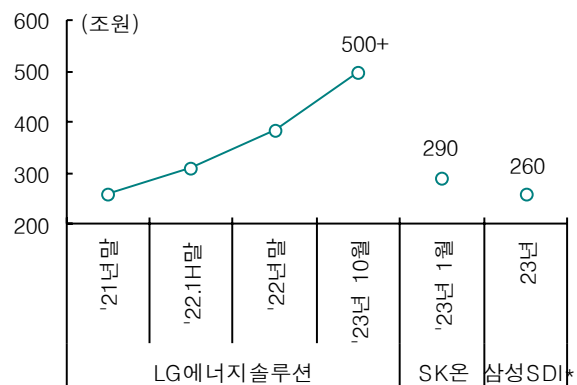
-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수주잔고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변동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일감은 충분히 확보
- 국내 이차전지 업계는 이번 둔화기를 통해 그간 압축적으로 진행된 생산 확대 경쟁의 속도를 늦추고 인력과 투자 시간을 벌여주는 기회로 이용하고자 함
 - 가파른 생산 확대로 수율 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안정화 시간 확보 가능
- 최근 중저가 EV용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양산을 추진하는 등 기존 삼원계 배터리 개발과 함께 제품 다변화에도 나설 계획
- 또한 장기적으로 소재 공급망 내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호주·칠레·캐나다 등 非중국 국가에서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재구축을 추진 

■ 미국 자동차 금리 동향



주 : 상업은행, 신차 대출 기준
자료 : Federal Reserve

■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의 수주잔고 동향



주 : 삼성SDI는 업계 추산
자료 : 각 사 발표 및 언론보도

해외은행, 미국내 기업·투자은행(CIB) 사업 확대 계획

이 중 수 연구위원

Santander는 기업 및 투자은행(CIB) 부문 강화를 위해 관련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Santander의 전략은 미주와 유럽의 기업 손님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이들과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다. 일본 Mizuho도 미국 투자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M&A 자문사를 인수하였다. Santander와 Mizuho의 공격적 행보는 자국내 수익성 감소를 만회하고 미국 투자은행 부문이 위축된 상황에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 Santander는 기업 및 투자은행(CIB) 부문 강화를 위해 공격적 채용 계획에 착수^[1]

- Santander는 그동안 투자은행 부문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올해 100명 이상의 투자은행 인력을 확충
- 추가 고용 인력의 대부분은 파산한 Credit Suisse 출신으로 Santander는 투자은행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이번 기회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예상
 - 전 Credit Suisse 멕시코에서 18년 근무한 이후 올해 초 Santander 멕시코 CEO에서 북미 지역 CEO로 임명된 Héctor Grisi가 인력 채용을 추천
- Santander는 Credit Suisse의 투자은행 부문에서 주식 및 채권, M&A, 에너지 분야 등을 담당하는 상위 직급 임원들도 영입
 - ECM & DCM 글로벌 책임자(→US CIB 부문장), 글로벌 에너지 및 인프라 공동 책임자(→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부문 글로벌 책임자), M&A 글로벌 책임자(→동일 부문)를 영입

■ Santander의 전략은 미주, 유럽의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들과 관계를 심화하는 방향


- 기존 기업 손님들과 대출(자금) 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달러시장, 자본시장, 구조화 거래 등과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Santander는 기업 및 투자은행 부문 직원을 2016년 3,500명에서 현재 8,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지난 7년간 동 부문을 꾸준히 확대해 왔음
- 기업금융(corporate banking)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Santander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 수수료 비즈니스를 추가하는 방식

[1] "Santander prepares \$250mn expansion of investment bank", FT, 2023.10.15

■ 일본 Mizuho도 미국 투자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M&A 자문사를 인수^[2]

- Mizuho는 향후 미국 투자은행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국 내 투자은행 부문 인력을 향후 3년간 30% 확대할 계획
 - 100여명이 추가 채용되면 Mizuho 미국 투자은행 인력은 2026년 1,200명으로 확대
- 성장 동력은 대출 및 예금과 투자를 결합한 상품 및 서비스이며 동 계획은 재생에너지 솔루션 제안, 디지털화, 포트폴리오 판매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
- Mizuho는 올해 5월 기술 및 소비자 기반 산업에서 M&A 자문에 강점이 있는 미국 투자은행 Greenhill & Co.를 5.5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음
 - Mizuho는 자문 대상 기업 경영진과의 M&A 및 자금조달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주식 인수 거래 등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

■ Santander와 Mizuho의 동 부문 역량 강화는 미국 투자은행 부문이 위축된 것을 기회로 삼아 자국내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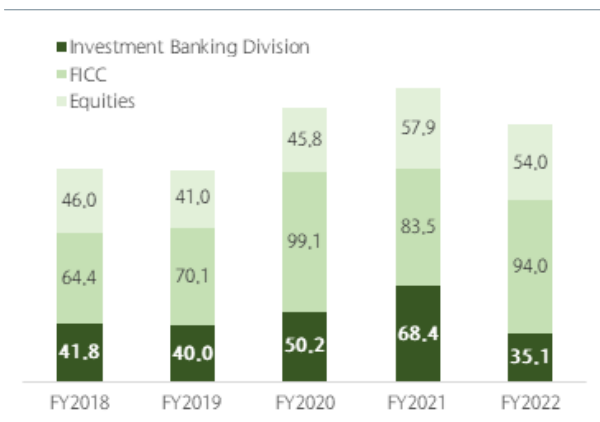
- 미국 투자은행 부문의 급격한 위축으로 올해 동 부문 감원 규모는 1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 이후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제기
 - 최근 제약회사 화이자의 씨젠 인수 및 호주 대형 광물회사(Newmont)의 경쟁 광물회사 인수(Newcrest Mining) 등 대규모 M&A가 지속되는 점 등이 긍정적 요인
- Santander는 유럽의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남미에서 리테일 부문에 의존한 바 있으며 최근 미국 내 투자은행 부문 강화도 동일한 전략으로 평가
- Mizuho의 일본 내 순이익은 최근 5년간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과 아시아에서 이를 만회하는 상황 

■ Santander, Mizuho 국내 및 해외 수익성

	지역	ROTE (%)
Santander	유럽	9.3%
	스페인(국내)	7.9%
	북미	11.1%
	남미	18.8%
	디지털은행	13.7%
	개인 및 투자금융	22.0%
Mizuho	지역	순이익 ('19~'23년 평균, 십억엔)
	일본(국내)	-294.4
	해외	481.0

주 : ROTE는 유형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Tangible Equity)
 자료 : Santander, Mizuho

■ 글로벌 투자은행 부문 수익(revenue) 추이 (십억미불)



자료 : S&P

[2] "Mizuho Securities to expand U.S. staff 30% in investment bank push", NIKKEI Asia, 2023.6.6

싱가포르 은행, 금융사기 대비 보안 강화

정순영 수석연구원

금융거래 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온라인 금융사기 위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싱가포르에서도 최근 맬웨어(malware) 등의 디지털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은행들은 손님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앱 보안을 강화하고, '자금 잠금' 기능 도입으로 디지털 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 중이다. 단, 은행의 디지털 보안강화로 손님이 휴대전화(앱) 사용 및 금융거래를 감시 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 적절한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 2023년 싱가포르 내 급증한 디지털 금융사기로 인해 피해 사례 심각¹⁾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금융거래가 늘어나며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금융사기 위험이 급증
- 특히 싱가포르 경찰청은 지난 9월 사기 범죄에 대한 연중 통계를 통해, 최근 몇 달 동안 싱가포르 내 맬웨어²⁾ 등의 디지털 금융사기가 크게 확산됐다고 발표
 - '23년 1~8월 싱가포르 내 디지털 금융사기는 약 1,4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총 손실액은 2,060만 싱가포르 달러로 추정
 - 이 중 650여건이 7~8월에 일어나 1,06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행했는데, 이는 '23년 상반기 사기 규모(750여건, 약 1,000만 싱가포르 달러)와 유사한 수준

■ 싱가포르 은행 협회(ABS)는 2023년 9월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의 주요 소매 은행들이 맬웨어 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발표

- OCBC는 휴대전화 내 맬웨어의 존재나 의심활동이 감지되는 앱을 강조 표시해 알리고, 해당 앱을 제거할 때까지 OCBC banking 앱 사용 및 금융거래를 차단
- DBS는 손님 보안조치 강화를 위해 Security Checkup 대시보드를 도입('23.9월)
 - DBS banking 앱 사용 시 필요한 모든 권장보안조치를 앱 내 '보안점검' 메뉴에서 손님이 직접 대시보드로 통합 조회/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


[1]"Singapore banks' latest anti-scam measures may be inconvenient, but would you rather lose your life savings?", CNA, 2023.10.12

[2] 맬웨어(malware): 컴퓨터 시스템이나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된 악성 소프트웨어 코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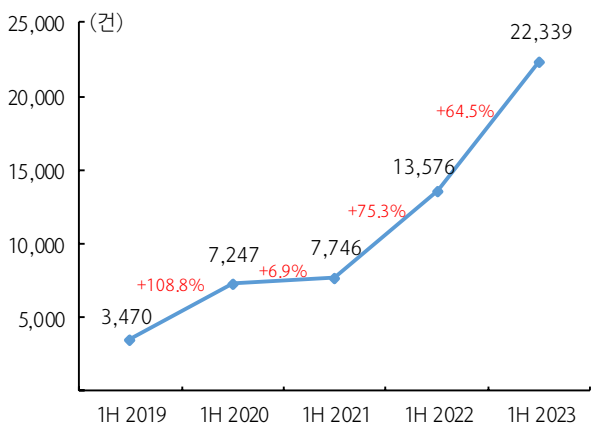
■ 이어 은행들은 연내 손님의 자금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안기능 ‘자금 잠금’ 출시를 준비

- ‘자금 잠금’은 손님이 직접 디지털 출금이 제한되도록 계좌를 잠글 수 있고, 잠금이 설정된 계좌는 디지털 외의 채널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출금이 가능
- 싱가포르 주요 은행 별로 올 11월까지 ‘자금 잠금’ 서비스를 개발/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위험 노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손님의 자금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
 - (OCBC) Money Lock : 손님이 banking앱으로 이체가 제한되는 계좌의 금액을 설정하고, 잠금 해제는 banking앱이 아닌 다른 플랫폼(ATM 등)으로 교차 승인으로 조치
 - (DBS) digiVault : 지정된 계좌의 자금을 디지털 방식으로 잠궈 인출을 제한할 수 있고, 잠금 해제 시 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단, 은행의 디지털 보안과 손님의 편의성 보장 사이에 효과적 균형 유지가 중요

- 맬웨어 공격과 피해 차단을 위해 banking앱의 보안 강화는 불가피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외부 앱 사용의 제약 및 휴대전화를 감시 받는다고 느끼는 등의 불만 토로
- 맬웨어 뿐만 아니라 피싱, 신원 도용, 신용카드 사기 등 다양한 금융 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총체적인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지만, 은행의 강화된 보안과 손님의 편의 보장 사이에 효과적 균형 유지가 중요
- 국내에서도 디지털 금융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전자금융사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금융회사들의 사이버 보안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
 - 금융감독원은 FDS운영가이드라인 및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이행하도록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23.10.5) 

■ 싱가포르 내 사기 범죄 피해 건수



자료 : 싱가포르 경찰청

■ 맬웨어(malware) 종류

바이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첨부파일 등으로 다른 장치로 확산되는 악성코드 ✓ 실행 시, 파일 및 데이터 손상 피해
트로이 목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적인 파일로 위장된 악성코드 ✓ 실행 시, 해커가 데이터를 훔치거나 DDoS등의 사이버 공격 수행에 사용
스파이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방문, 파일 설치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설치 ✓ 사용자의 웹 트래픽활동, 로그인 정보, 결제정보 등의 데이터를 추적/수집
랜섬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코드가 파일 또는 컴퓨터시스템에 접속이 제한되도록 감염시킴 ✓ 파일/시스템에 대한 접속 복원의 대가로 돈을 요구
애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 사이트에 방문 시, 악성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 원치 않는 광고가 컴퓨터 화면을 채우거나, 검색하지 않은 웹사이트로 자동 접속됨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리: 비둘기파 연준과 재무부 국채발행 조절에 반락

윤 석 진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비둘기파적 FOMC결과와 美 재무부의 국채발행 속도조절에 따른 수급 우려 완화 등에 장기금리 중심으로 반락했다. 국내 금리는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韓 수출과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에도 대외금리 흐름에 높은 민감도를 보이며 하락했다. 11월 FOMC는 금리를 동결하고, 최근의 금융여건 긴축 등으로 추가 인상에 신중해졌음을 시사했다. 향후 국내외 금리는 하방압력이 우세하나, 금리 낙폭 확대 시 금융환경 조기 완화를 우려한 연준의 경계성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

■ 글로벌 금리는 비둘기파적 FOMC결과·美국채 수급우려 완화에 장기물 중심으로 반락

- 11월 FOMC는 성명문과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금융여건이 긴축적임을 언급하고 향후 점도표 수정가능성을 제시한 점 등이 부각되며 비둘기파적으로 해석
- 아울러 미국 재무부가 '23.4Q 차입규모를 기존 예상에 비해 축소하고, 국채발행 계획 내 장기물을 통한 조달 비중을 조절하며 시장 내 장기채 수급 불안 완화
 - 美 재무부 '23년 4/4분기 차입계획(억 달러) : 7월 예상규모 8,520 → 실제 7,760
- 이와 더불어 美 ISM제조업·서비스업지수 부진과 실업률 상승·비농업고용의 예상치 하회 등에 따른 고용 둔화 조짐이 부각되며 중장기금리 반락
 - 美 비농업고용 증감/실업률(천 명, %) : 9월 297/3.8 → 10월 150/3.9 (예상 180/3.8)
 - 미 국채 2/10년물 금리(%) : 10.27일 5.03/4.84 → 11.3일 4.85/4.58 → 9일 5.03/4.62


■ 국내 금리는 韓 수출 플러스 전환·물가 반등세 지속에도 대외금리에 연동되며 급락

- 한국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올해 최대 실적을 경신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16.4억 달러를 기록해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
 - 韓 수출증감률 (% , YoY) : 23.7월 -16.1 → 8월 -8.1 → 9월 -4.4 → 10월 +5.1
- 국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치(3.7% yoy)를 상회하며 재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물가가 하락하며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유효
 - 韓 CPI/근원CPI (% , YoY) : 23.8월 3.4/3.3 → 9월 3.7/3.3 → 10월 3.8/3.2
- 국내 금리는 수출 개선·CPI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외금리 하락세에 동조화되며 급락
 - 국고 3/10년 금리(%) : 10.27일 4.07/4.28 → 11.3일 3.95/4.11 → 10일 오전 3.9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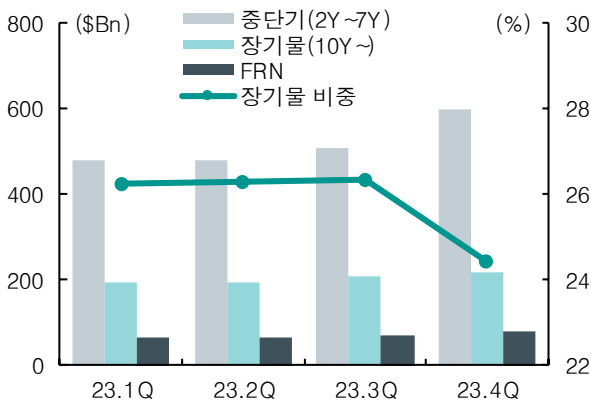
■ FOMC, 2회 연속 정책금리 동결하고 향후 추가 인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시사

- 11월 FOMC에서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2회 연속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 전달(목표상단 5.50% 유지, 만장일치 결정)
 - 양적 긴축(QT)은 기존과 같이 매월 최대 \$ 950억의 대차대조표 축소 규모를 유지
- FOMC성명문 내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기존의 ‘견고한(Solid) 속도’로 확장 중이라는 표현에서 ‘강한(Strong) 속도’로 수정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조정
 - 또한, 향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기존의 ‘긴축적 신용여건’ 외에도 ‘긴축적 금융(Financial)’을 추가해 최근 장기금리 급등이 추가 긴축효과를 주고 있음을 인정
- 연준 의장은 몇 차례 동결 후에도 재차 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을 열어두는 한편,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가 양호했다는 발언을 통해 물가 평가 완화
 - 9월 점도표 상 최종금리 전망(1회 추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상 여부에 대해 가이드가 없던 점, 점도표는 해당 시점 예상일뿐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은 비둘기파적
- 美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긴축효과 명시, 인플레이션 평가 개선, 점도표 최종금리의 수정 가능성 언급 등을 감안 시 연준의 추가 인상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판단

■ 국내외 시장금리는 하방압력 우세하나, 금융환경 완화에 대한 연준의 경계 발언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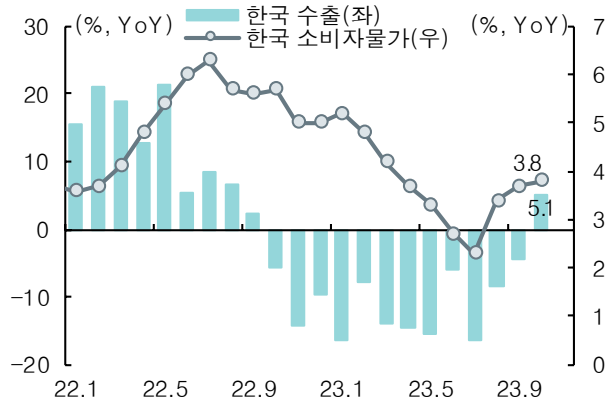
- 향후 美 정책금리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 및 고용의 점진적 둔화가 가시화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 韓 11월 금통위 또한 동결 결정이 전망되나, 최근 소비자물가 예상치 상회 및 한은총재의 물가목표 달성시점 지연 언급 등을 감안시 물가 경계심은 이어질 전망
- 美국채 수급불안 완화 연준의 비둘기파적 태도로 당분간 시장금리 하방압력 우세하나, 금리 낙폭 확대 시 금융환경의 조기 완화를 우려한 연준의 경계성 발언에 유의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80~4.00%, 3.90~4.10% 범위로 전망 

■ 미국 재무부 국채발행 계획 및 장기채 비중



자료 : 美 재무부

■ 한국 수출 및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외환: 금락 후 숨고르기 장세

오 현 희 연구위원

11월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둔화되면서 달러화가 하락하고 달러외 통화의 강세가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도 美 국채금리와 달러화 하락에 힘입어 3거래일만에 60원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연준위원과 파월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 전환하자 원/달러 환율도 낙폭을 축소하며 1,300원대로 복귀하였다.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와 긴축 우려가 맞물리며 1,300원대 초반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금리 동결 기대감 확산에 따른 美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급락

- 원/달러 환율은 11월 FOMC 이후 미국의 국채 금리 하락 속 비농업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 등에 힘입은 글로벌 달러 약세로 급락
 - 특히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국내 증시 반등 속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세(11.6일 1.2조 순유입) 등이 가세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1,297.3원, 11.6일)
 - 반도체 생산증가(9월 YoY 23.7%), 수출 반등(10월 YoY 5.1%), 5개월 연속 무역흑자(10월 16.4억 달러) 기록 등도 원/달러 환율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이후 연준 위원들에 이은 파월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달러 반등과 저가인식에 따른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으로 낙폭이 축소되며 1,310원대 복귀


■ [국제 환율] 완화적 FOMC 여파로 달러화 약세 속 非 달러화 강세 전환

- 11월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파월의장의 완화적 발언과 미국 고용지표 둔화 등이 이어지면서 美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달러화 하락
 - 다만, 달러화 지수는 연준 위원들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 속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 전환 등으로 낙폭을 축소(11.6일 104.8 → 11.9일 105.9)
- 달러/유로 환율은 3Q 성장률 부진(전기대비 0.1% 감소)에도 FOMC 여파로 상승하였으나, 獨 9월 산업생산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자 상승폭 일부 반납
- 엔/달러 환율은 FOMC 이후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150엔을 하회하기도 하였으나, 우에다 BOJ 총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발언 등으로 재차 상승
- 위안/달러는 달러 약세 등으로 강세 압력이 높아지며 7.3위안을 하회하였으나, 中 10월 수출(YoY 6.4% 감소)과 물가지표 부진 등으로 낙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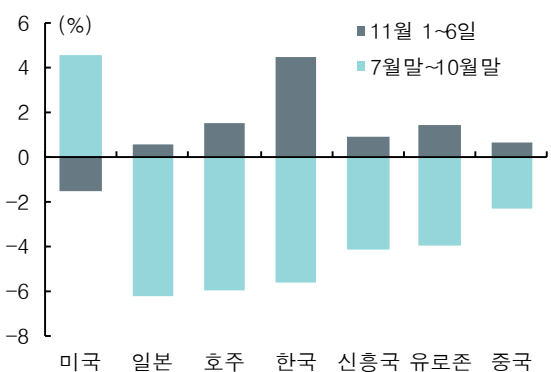
■ 11월 FOMC 이후 달러화 약세 국면에서 원화의 강세 폭이 두드러지는 모습

- FOMC를 지나면서 달러外 통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만에 4.4% 급락(11.1일 대비 11.6일)하며 주요 통화대비 큰 폭의 하락세 시현
 - 동 기간 달러화가 1.6% 하락한 가운데, 유로화 1.4%, 엔화와 위안화는 0.6% 절상
- 미국 건축 우려 완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진정되면서 대내 수출 회복과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 펀더멘털 개선 요인이 부각된 점이 원화 강세를 이끈 요인
 - 유로존 경기부진 전망, BOJ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中 부동산 리스크 등 주요 통화들은 환율 불안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원화의 경우 대내 펀더멘털이 개선될 조짐
- 또한, 3개월 연속 이어진 증시 외인 매도세가 순매수 전환된 점도 원화강세 요인
 - 국내 증시는 중동발 리스크, 美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요인 외에도 이차전지주 급락 등 대내요인이 동반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외인 매도 흐름
- 다만, 달러화와 원화간 회귀모형을 이용한 현 달러화 수준(105.9)대비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1,320~1,330원으로 최근 낙폭 과다에 따른 반등 가능성 유의

■ 연준 금리인상 종료 기대와 단기급등 부담 등이 맞물리며 1,300원 초반에서 등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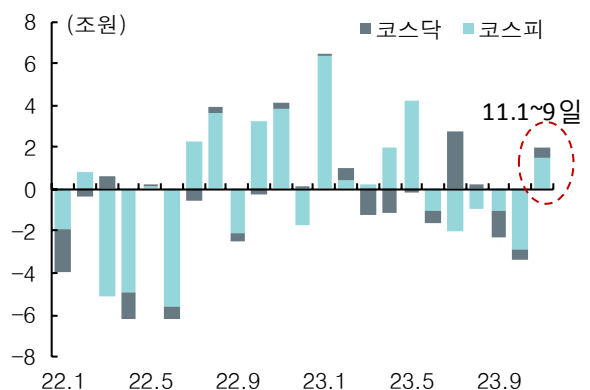
- 연준 금리인상 중단 기대 속 美 장기채 수급부담 완화(재무부 차입규모 및 국채발행 비중 조절), 부진한 美 고용(실업수당청구진수 예상 하회) 등은 환율 하락요인
- 다만, 최근의 단기급락에 따른 되돌림 속 엔화와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 불안 지속, 연준의 매파적 입장 재개 가능성 등은 추가 하락을 제한할 전망
- 아울러 중동지역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 발표 등을 주시하며 원/달러 환율은 향후 2주간 1,290~1,340원에서 움직일 전망 

■ 주요 통화 절상률



자료: Bloomberg

■ 주식시장 외국인 순매수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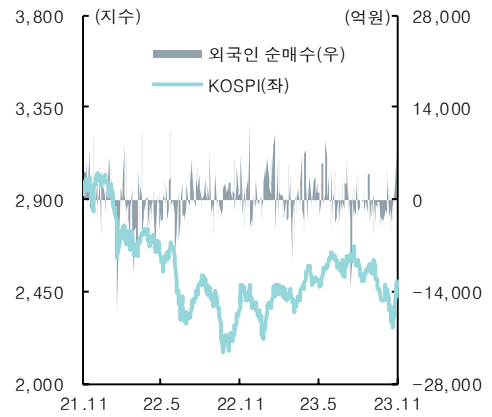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10월말	3.50	3.82	4.11	4.91	4.09	4.20
11월 3일	3.52	3.83	4.07	4.79	3.95	4.02
11월 6일	3.53	3.83	4.07	4.72	3.88	3.95
11월 7일	3.46	3.83	4.08	4.73	3.89	3.96
11월 8일	3.48	3.83	4.08	4.72	3.87	3.93
11월 9일	3.56	3.83	4.07	4.70	3.85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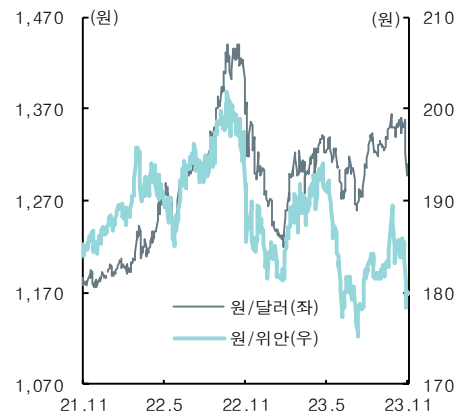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10월말	2,278.0	82,331	395	-3,273
11월 3일	2,368.3	80,410	579	1,340
11월 6일	2,502.4	152,255	529	7,115
11월 7일	2,444.0	120,866	458	4,112
11월 8일	2,421.6	76,673	467	-137
11월 9일	2,427.1	72,884	395	2,832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10월말	1,350.5	890.5	184.6	1,427.9
11월 3일	1,322.4	885.0	181.1	1,418.8
11월 6일	1,297.3	864.9	178.4	1,390.7
11월 7일	1,307.9	869.4	179.6	1,398.7
11월 8일	1,310.6	868.0	180.0	1,403.6
11월 9일	1,310.1	865.4	179.9	1,3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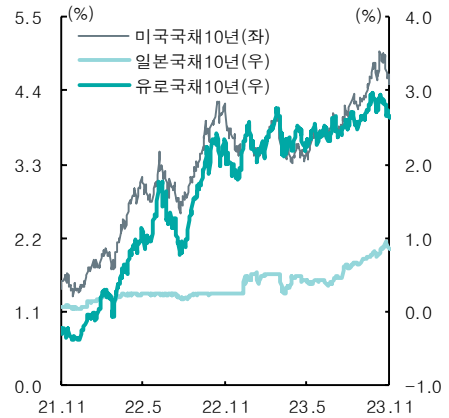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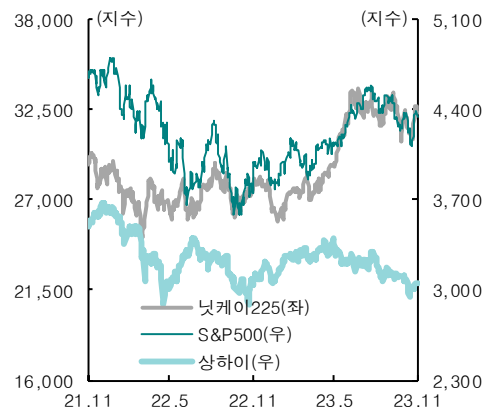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1년말	0.07	0.09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10월말	5.33	5.38	5.09	4.93	0.95	2.81
11월 3일	5.33	5.38	4.84	4.57	0.93	2.65
11월 6일	5.33	5.37	4.93	4.64	0.88	2.74
11월 7일	5.33	5.37	4.92	4.57	0.88	2.66
11월 8일	5.33	5.37	4.93	4.49	0.86	2.62
11월 9일	-	5.37	5.02	4.62	0.84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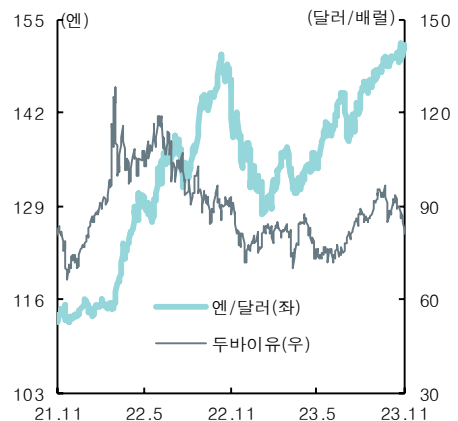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4,766.2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10월말	4,193.8	30,858.9	3,018.8	4,061.1
11월 3일	4,358.3	-	3,030.8	4,174.7
11월 6일	4,366.0	32,708.5	3,058.4	4,158.6
11월 7일	4,378.4	32,271.8	3,057.3	4,153.4
11월 8일	4,382.8	32,166.5	3,052.4	4,178.5
11월 9일	4,347.4	32,646.5	3,053.3	4,229.2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10월말	151.62	1.057	88.1	1,994.3
11월 3일	149.34	1.073	88.3	1,999.2
11월 6일	150.00	1.072	86.9	1,988.6
11월 7일	150.44	1.069	85.0	1,973.5
11월 8일	150.98	1.071	82.7	1,957.8
11월 9일	151.37	1.066	81.3	1,969.8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22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3년 11월 10일 인쇄

2023년 11월 13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22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